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

인적자본관점(Human Capital Perspective)과
인간능력관점(Human Capability Perspective)의 적용

강 철 회

(연세대학교)

이 흥 직

(강남대학교)

홍 현 미 라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 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인적자본관점, 인간능력관점, 실업, 재취업

1. 서론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래로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실업과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식화 작업은 재취업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특히, 실업이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문제로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업으로부터의 재취업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실업과 재취업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차원에서 도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 현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실업에서 재취업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갖는 독특함은 실업과 재취업의 현상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두 가지 관점에 기반 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본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두 가지 관점 중 첫 번째 관점은 고용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인적자본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의 관점은 다소 새로운 관점으로서 Sen(1997)에 의해서 강조되어져 오고 있는 인간능력 관점이다. 실업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Perspective)에 기초하는 경향이 큼에 반해,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다소 대비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관점(Human Capability Perspective)을 적용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반 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탐색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분석을 실증적이고 보다 다각적으로 수행해 보고자 한다.

Sen(1997)은 인간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복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재취업 등과 관련해서 인간능력의 함양이라는 보다 원천적인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큼을 주장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이 사회복지 제도와 고용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임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시각의 적용을 인적자본의 시각과 비교의 차원에서 시도해 본다. 인간능력 관점은 인간의 건강, 기초적인 교육, 기본 생활능력, 사회적 능력 등이 고용 및 재취업과 관련해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주목하는 인간의 학력, 인지기술, 직업력 등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고용 및 재취업과 관련해서 사회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지와 지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취업 현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더욱 효과적인 것인가 혹은 기본적인 인간능력의 확보가 더욱 효과적인 것인가의 문제를 재취업이라는 현상에 접목해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자료의 제한성이 다소 존재하긴 하나 기존의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 관점의 요

인들이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인간능력 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과 배제 관련 요인 중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보다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성의 차이라는 요인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먼저 이 요인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 아울러서 성 차이에 따른 다른 요인들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비교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원 개인 1,721명과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동안 새로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 657명을 합한 2,378명 중 나이가 정년 연령에 가까워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의 의미가 적은 65세 이상의 원 개인을 제외한 1,87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기반 해서 재취업의 위험도(hazard)를 예측하는 분석방법, 즉 이러한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재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인 cox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인적자본론적 관점 및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정하여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긴 하나, 새로운 관점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그리고 인간능력관점의 분석단위를 개인수준에서 새롭게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연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학적인 측면에 오랜 기간 강조되어져 온 인적자본론 차원에서의 소극적인 복지에 대한 논의를 극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를 지향하며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인간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능력 관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업과 재취업 등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적절성을 탐색해 보면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사회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해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1)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재취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고용과 재취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인적자본 투자행위를 중심으로 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논의(Schultz, 1963; Becker, 1965; Mincer, 1974)와, 이중노동시장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논의(Doeringer and Piore, 1971; Gordon, Edward, and Reich, 1975)로 구분할 수 있다.¹⁾ 이러한 논의 가운데,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논의의 중심을

1) 노동공급 측면의 이론에서는 개인은 인적자본 투자행위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이루며, 생산성의 차이가 재취업 시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설명하는 인적자본 이론이 대표적이다. 한편 노동수요측면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임금, 근로조건, 직업의 안정성 등에 있어서 유동성이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이중

인적자본론과 인간능력관점에 두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인적자본론 논의의 정리

인적자본 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교육비를 인적자원인 노동자에게 투자하면 할수록 노동자가 질적 향상으로 인해 생산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생산력은 개인의 소득증대를 가져옴으로서 국가적으로는 경제발전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최은수, 1997). 따라서 교육비는 소비가 아니며,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로서, 실물자본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노동자 1인당 더 높은 산출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수익성 있는 경제적 투자로 해석된다(Schultz, 1963).

이렇게 인적자본 이론은 완전경쟁시장과 노동의 동질성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노동의 질적 차이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임금, 고용형태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면서 노동의 질을 개인의 투자행위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주성환·최준혜, 2001). 이러한 인적자본 이론은 재취업의 가능성 및 재취업시의 임금 및 고용형태는 교육이나 훈련, 경력 등의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또한 인적자본 축적의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을 강조한다.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 형성의 주요 방법인 교육과 경력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래의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현재소득을 포기하는 투자행위이며,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기초해서 인적자본 이론은 교육 등에 대한 투자 결정은 현재 소득을 포기하는 투자행위로 이를 통해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수익 즉 지출한 교육비용에 이자를 붙여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학력 숙련노동자와 저학력 미숙련노동자의 평생임금소득과 근로조건은 동등하다고 본다. 재취업 및 재취업 형태 그리고 임금수준과 관련해서 인적자본 이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육과 일의 경험 등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의 차이로 인하여 재취업 가능성의 차이 및 재취업시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주성환·최준혜, 2001).

한편, 인적자본 이론에서 주장하는 교육, 생산성, 소득간의 단순한 인과 관계적 설명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선발이론과 직무경쟁이론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우선 Spence(1974)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이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용자에게 채용 정보나 선발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보다 강함을 주장한다. 그는 '선발이론'을 통해, 높은 임금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교육이나 훈련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임을 강조한다. 즉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같은 양의 인적 자본투자에서 더 높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사용자의 채용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인적자본에 대해 효율적인 투자를 한 이들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김계연, 2000).

Thurow(1975)는 노동자의 훈련가능성과 적응가능성은 바로 교육에 의해서 상정되어질 수 있고, 직

노동시장 이론을 들 수 있다.

무라는 것은 바로 이 훈련가능성과 적응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직무경쟁이론'을 통해 교육과 같은 요인이 직무와 임금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고용주에게는 노동자의 잠재적 훈련비용을 예고해 주는 배경특성으로 교육수준 등이 채용을 위한 유일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간접적 측정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해당 직업에 소용없는 것일지라도 한 유형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유형의 기능도 쉽게 습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육적 성취가 노동자의 배경특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 이론의 핵심변수에 주목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선발이론과 직무경쟁이론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훈련 등은 사용자의 선발도구 혹은 훈련가능성에 대한 신호(signal)로 작용하여,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공급 대기 행렬의 선두에 위치하여 재취업 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조준용,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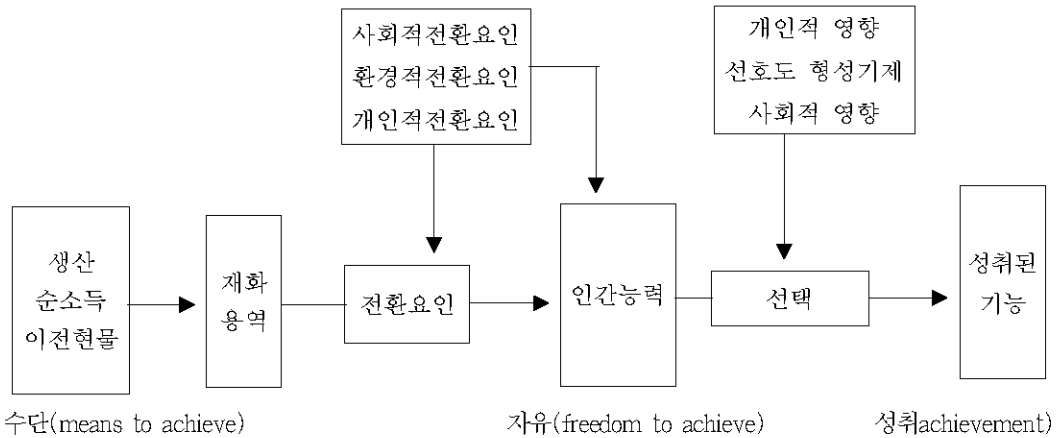
(2) 인간능력관점 논의의 정리

인간능력측면에서의 접근을 주장하는 Sen(1997: 1999)은 앞서 논의한 인적자본론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생산가능성의 배가를 통한 인간개발에 집중하는 인적자본론의 제한성에도 주목한다. 그는 인지적 인간개발보다는 인간의 가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능력의 배양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지위확보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세 단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능력 전개의 기본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존에 개인이 소유한 상품 및 현금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창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바탕으로 인간능력(capability)을 형성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획득된 개인의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개인의 복지를 실현시키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기능(functioning)을 선택하여 그 기능을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형성된 인간능력의 규모에 따라 개인의 복지 실현을 위한 기능 선택의 폭(freedom to choose)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인간능력시각은 이러한 선택의 폭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복지를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Sen은 전환요인을 설명하는 근거를 재화나 용역의 생성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 자원(재화나 용역)을 기초로 해 새로운 존재로의 성숙이나 가능성을 생성해 내는 인간능력의 중요성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 등의 자원들을 인간능력으로 전환시켜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교육, 정치, 가족제도 등의 사회적 제도들과 성, 종교, 문화, 윤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규범, 전통, 그리고 여타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 환경적 요인(인간이 주거하는 공간 및 환경의 영향), 개인적 요인(자원을 조합하여 인간능력을 생성해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향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통해 생성된 인간능력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취를 하게 된다. 즉, 복지실현을 위한 기능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 기능선택에는 자신감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동료집단 내에서의 압력(peer pressure), 사회적 순응도, 가족이나 동료집단으로부터의 기대 등의 사회적 요인 및 주거 공간 등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인간능력관점에 제시하는 인간능력의 실행과정

인간능력관점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설명과 함께, Sen(1997)은 인적자본론과 인간능력관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적자본에 관한 논의는 생산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인간개체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간능력관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을 둔다. 이 두 시각은 서로 관계성이 있으나, 다른 성과물에 관심을 둔다는 것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인적자본 관점은 관행적으로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간접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인간능력 관점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서 인간능력의 직접적인 결과물(인간의 윤택한 삶)과 간접적인 결과물(시장에서의 높은 가격 흥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²⁾ 이러한 포괄적 시각에서 Sen(1997; 1999)은 인적자본 개념이 갖는 유용성이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인간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매우 큼을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능력관점은 대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적자본관점에 부가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음도 언급한다. 정리해 보면, 인적자본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과 인간능력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 사이에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차

2)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 인적자본이론은 생산성 향상, 소득의 증대,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노동자원의 개발과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인간능력접근은 정치, 사회, 개인적 측면에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선택의 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인간의 복지(well-being)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도, 인적자본이론은 양적인 면, 소극적인 복지, 경제적인 측면 등의 간접적인 가치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 인간능력 접근은 간접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 적극적인 복지, 기본권, 사회권의 신장 등의 직접적인 가치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즉, 인적자본이론은 경제적 향상을 강조하는 시장(market)영역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인간능력접근은 시장(market)과 비 시장(non-market)의 영역을 포괄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기타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를 촉구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의 (재)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과발생의 측면에서, 인간능력접근은 인적자본이론에 비해 시간은 많이 소요되나, 그 효과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인적자본론적 시각의 적용에 비해 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한다(Sen, 1999).

이는 수단(means)과 목적(ends)간의 구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이러한 인간능력관점의 효용은 개인이 소속된 조직 내에서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변화에 강조점을 두는 인적자본의 소극적인 복지(well-being)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⁴⁾

2) 인간능력 개념과 구성 및 인적자본 개념의 구성에 대한 논의

(1) 인간능력관점에서의 인간능력 개념과 그 구성에 대한 논의

인간능력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간능력개념은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능력에 대한 개념화에 관련한 논의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인간능력 조작화와 관련한 논의 그리고 더 나아가 분석단위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실증연구 적용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Fukuda-Parr, 2002; Grasso, 2002)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논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인간능력개념에 대한 개념화 및 조작화 논의를 다음에서와 같이 정리해 본다.⁵⁾

여성학자 Nussbaum(1999)은 인간능력을 기본능력(basic capability), 내적능력(internal capability), 그리고 조합능력(combined capability)으로 개념화한다. 기본능력이란 적성이나 소질과 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기술을 말하고, 내적능력이란 내적인 개인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써 활동(act)이나 기능에 대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역할이나 다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의 발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문자 해독력, 수리력, 교육이나 훈련 등이 그 예이다. 조합능력이란, 내적능력이 적절한 외적조건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 내에서의 법이라던가 공공제도 또는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 등과의 결합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해 사람들이 원하는 개인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Qizilbash(1996)는 Sen의 인간능력관점과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세밀한 가치 목록표를 제시함으로써 인간능력개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장시켰다. 즉 인간능력의 구성요소로 (a) 건강수준, 영양, 공중위생, 휴식, 안전, (b) 최소한의 이해력(학습능력, 문자해독력, 기본적인 지적·신체적 역량), (c) 자기-존중과 열망, (d) 자율성이나 자기결정성, (e) 자유와 해방(liberty), (f) 향유(enjoyment),

- 3) 그러므로, 상품(commodity), 소득, 소비, 부에 관심을 가지는 인적자본시각에서는 인적자본의 개발을 하나의 수단(means)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기능(functioning)과 능력(capability)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능력관점은 인간의 능력 자체가 인간복지 그 자체를 위한 것, 즉 목표(ends)로 여긴다.
- 4) Fukuda-Parr(2002)에 의하면, 인간능력의 관점은 사회개발에 우선을 두지만 경제적 성장 또한 추구하며, 인간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political and social reform)을 촉구하며, 공공정책에 있어서도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통한 형평(equity)을 추구하며, 정책과 제도의 변화(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 5)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인간능력에 관한 개념의 정의 및 개념의 하위요소에 대해서는 부표로 정리하였다.

(g) 지식, (h) 사회생활을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의미한 관계, (i) 삶의 의미를 달성케 하는 성취 등을 제시한다.

Nussbaum(2002b)은 인간능력의 개념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는 여성학적 관점의 반영⁶⁾ 측면이고, 둘째는 인간능력의 기능성에 대한 강조 측면이다. 여성학적 관점의 반영 측면에서, 그는 여성이 인간 삶의 기본기능을 성취하는데 취약하며 특정 전문직이나 기술 교육을 성취하는데 불리함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국가적 수준에서 법률적 동등함이 보장되지 못하며, 여성이 갖는 이중부담(고용과 가정주부 및 아동양육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결여와 창조적·인지적 자질 배양 기회부족 등에 있다고 설명한다. Nussbaum(2001)은 인간능력 개념화 논의에서 인간능력의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기능적 능력은 (a) 평균수명까지 생활 할 수 있는 능력(life), (b) 건강유지 및 재생산 능력, 적절한 영양섭취와 씬을 가질 능력(bodily health), (c) 이동의 자유, 폭력적 위협에 대한 안전, 성적만족과 재생산 선택의 기회(bodily integrity), (d) 감각 사용과 상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지니는 것(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e) 환경에 대한 애착형성 능력 즉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emotions), (f)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인생계획을 반추하고(reflection) 관여하는 것(practical reason), (g) 타인과의 공존의 삶, 타인존재에 대한 가치존중(affiliation), (h) 동·식물과 자연에 대한 배려능력(other species), (i) 웃을 수 있고, 유희하며, 휴양할 수 있는 능력(play), (j) 정치적 선택과 참여권리, 자산형성(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현실을 고려할 때 인간능력에서 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여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Valian(1998), Kimmer(2000), Bourdieu(2001) 등은 인간능력 개념을 논의할 때 성별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인간능력의 논의에 있어서 자원의 인간능력으로의 전환(conversion), 인간능력의 구성적 요소(set), 선택 및 개인적 책임이라는 것이 성(gender)과의 상호작용을 가짐을 강조한다. 즉 성에 따라 자원의 전환과 능력의 구성 및 선택과 책임 등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자원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편견 및 제한된 기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인간능력의 구성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남성의 인간능력의 구성요소들은 여성의 그것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여성보다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개인적 책임과 선택상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여성에 있어서는 선택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렇게 성에 의해 인간능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논의는 인간의 성이라는 변수가 인간능력의 핵심적인 요인일 수 있고 동시에 성별에 따라 인간능력이라는 것이 사회현상과 상당히 다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⁷⁾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인간능력의 요인으로 성에 관해서 주

6) Nussbaum은 불평등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여성의 인간능력에 있어 제한성을 가져오는 지, 즉 능력의 불평등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논하면서 인간능력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7) 여성주의적 접근(feminist approach)도 인간능력이 담고 있는 기능(functioning)과 능력(capability), 인간의 다양성(human diversity), 개인간의 차이(individualism)와 노동시장 내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목할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성별에 따라 인간능력이라는 것이 재취업과 같은 사회현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높음을 제시해 준다.

(2) 인적자본개념의 구성에 대한 논의

인적자본론적 시각의 인적자본 개념의 구성을 실증적 연구의 수준에서 구체화하는데 있어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들은 교육, 직업력, 기술 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인적자본 개념을 조작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은수(1997)는 고용침체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자본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논의하면서, 직업훈련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공공직업훈련의 강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의 경쟁구조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화,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제구축,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는데, 그의 이러한 제시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고용과 실업의 문제와 관련해서 직업훈련과 교육을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를 이용하여 국가간 임금결정요인들을 살펴본 정광호(2002)는 고도의 인지기술(cognitive skills)과 대학교육이라는 고등교육의 프리미엄이 임금구조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인지기술과 고등교육으로 통해서 인적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인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즉 정광호(2002)의 연구는 선진국들에서 인지기술과 고등교육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임금의 수준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인식되는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요인으로 인간이 지니는 인지기술과 고등교육의 정도가 인적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

한편 교육(education)과 인지기술(cognitive skill)⁸⁾ 이외에 직업의 경험, 즉 직업력(job experience)도 인적자본의 주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서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연구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인간능력과 인적자본의 구성에 대한 위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소의 제한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인간능력의 구성요인들과 인적자본의 구성요인들을 다음과 같은 인접 변수(proxy measure)들의 설정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간능력 구성요인들을 개인 수준의 변수로 조작화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어져 온 내용들에 기초해서 인적자본과 인간능력의 구성을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서 구별해 보고자 한다. 즉 상기한 개념과 개념구성과 관련된 논의에 기초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을 학력수준, 인지기술, 직업력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해 볼 수 있고, 인간능력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수리능력 즉 기초교육능력⁹⁾ 원만한

기회상의 차별에 있어서 '성'의 변수를 강조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정의이론(social justice theory)도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고려하나, 그 규모가 신체적 장애, 성별 등 지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연구들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능력접근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상기한 두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인간능력접근은 여성에 있어서도, 가족구성, 자녀수,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보조금(child care subsidies) 수혜여부 등의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에 주목한다.

8) 인지기술의 측정에 있어서는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정광호(2002)의 논문을 참고.

9) 인적자본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학력수준변수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나 재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건강상태의 유지능력, 기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및 지불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거주지역, 성, 연령,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사회적 능력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각 개념 구성요인에 대한 파악은 다음에서 실행될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전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1〉 인적자본과 인간능력 개념의 구성요인

개념 구분	하위요인	변 수
인적자본	학력	학력수준
	인지기술	기술수준, 직업훈련 경험
	직업력	근속기간, 고용형태, 이직사유
인간능력	교육능력	기초교육능력
	건강 및 의료적 능력	건강보험가입, 의료비 지출
	소득 및 지불능력	생활지불능력, 사회보험수혜여부, 이전소득
	사회적 능력	성, 사회적 지위, 거주지, 나이, 가구의 특성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3.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5차년도 자료이다. 이는 1998년~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5,00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연 1회 노동시장활동 및 소득,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조사이다(방하남 외, 1999). 이 자료에서는 총 4,298가구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총 10,965명의 개인이 유효응답을 하였다. 이들 중 4차 조사 이후 실직상태에서 5차년도에 재취업하지 못한 원개인 표본은 1,721명이다. 또한 4차 조사 이후 실직상태에서 5차년도에 새로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은 657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의 표본은 일차적으로는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원개인 1,721명과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동안 새로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 657명을 합한 2,378명으로 구성되었다.¹⁰⁾ 그러나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전문대학이상의 학력변수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인간능력관점에서는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능력의 하나로 기초교육을 설정한다.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현 우리나라 의무교육제인 중졸여부로 설정하였다.

10) 본 연구는 실업자의 재취업이라는 사건(event)과 더불어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으로 표본추출을 하였다.

구성된 표본에서 나이가 정년 연령 이상으로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의 의미가 적을 수 있는 경우, 즉 65세 이상인 원 개인을 제외시키고 1,87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분석과 함께 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기반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분석방법, 즉 재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인 Cox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 위험도이고, 이 위험도는 실업기간과 취업 여부의 사건 변수를 통해서 구성된다. 실업기간은 전직 퇴직일로부터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일(day)단위의 자연대수 값으로 취했다. 재취업 여부는 재취업이 된 경우는 1, 미취업인 경우는 0으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즉 인적자본론적 접근과 인간능력 접근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의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	구분	변수의 측정	
종속 변수 ¹¹⁾	재취업의 위험도(가능성) 실업기간	전직 퇴직일로부터 재취업까지의 시간 일(day)단위의 자연대수 값	
	재취업여부	재취업 함 1, 재취업 못함 0	
독 립 변 수	인 적 자 본 접 근	학력수준	학력수준 자연로그 값
		기술수준	기술수준 적합도 5점 척도
		직업훈련경험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
		근속기간	일(day)단위, 스퀘어루트 값
		전직 고용형태	전직 정규직1, 비정규직 0
		이직사유	자발적 퇴직1, 비자발적 퇴직 0
인 간 능 력 접 근	인 간 능 력 접 근	기초교육능력	중졸이상 1, 아니면 0
		건강보험가입 여부	가입 1, 미 가입 0
		의료비지출	의료비지출 자연로그 값
		생활지불능력	월평균생활비(만원단위) 자연대수 값
		사회보험수혜여부	있음 1, 없음 0
		이전소득여부	있음 1, 없음 0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5점 척도
		연령	만 나이
		연령제공 ¹²⁾	연령에 제공한 값
		성별	남성 1, 여성 0
		결혼여부	결혼 1, 미혼 0
		자녀유무	있음 1, 없음 0
		수도권 거주여부	수도권 거주 1, 아니면 0

11) 본 연구에서는 실업기간과 재취업 발생사건에 기반한 재취업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2) 연령에 있어서는 선형적인 관계뿐 아니라, 다항적인(polynomial)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연령제공 변수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 결과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재취업 여부를 보면, 재취업을 한 경우는 632명으로 3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기간은 평균 3.9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서는 평균이 37.68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여성이 1,262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6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구성에 있어서는 1,267명(77.7%)이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1,003명(53.6%)이 자녀를 두고 있었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상이 857명(4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이 571명(30.5%), 중졸 이하가 442명(2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위를 보면, 중하와 중류층에 각기 731명(39.1%), 727명(38.9%)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 대상자 중 1,697명(90.8%)이 기술수준 적합성이 적절했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 중 995명(69.5%)이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1,347명(75.5%)이 자발적 퇴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1,382명(73.9%)이 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인 1,827명(97.6%)이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소 주목할 만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중 1,612명(86.2%)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수혜여부를 보면, 대다수인 1,750명(93.5%)이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월평균 생활비의 규모를 보면, 평균 142.31만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합해서 619명(33.1%)이고, 1,107명(59.2%)이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및 농촌이 아닌 그 밖의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남녀 성별에 따른 비교의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재취업 여부를 성별 비교를 통해 보면, 남성이 재취업을 한 경우는 347명으로 5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285명(22.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기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1.97년이고 여성은 4.9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서는 남성의 경우 20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181명, 29.7%)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30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445명, 35.3%)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구성에 있어서는 남성은 372명(61.1%), 여성은 1,081명(85.7%)이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남성(39.1%)보다, 여성(60.6%)이 자녀를 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남성, 여성 각각 고졸이상이 249명(40.9%),

608명(4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1

변수 명	구 분	빈 도	%혹은 평균(SD)
연령	20세 이하	16	.9
	21세~29세	501	26.8
	30세~39세	610	32.6
	40세~49세	397	21.2
	50세~59세	312	16.7
	60세 이상	35	1.9
	평균(SD)		
성별	여성	1262	67.5
	남성	609	32.5
혼인여부	미혼	418	22.3
	결혼	1453	77.7
자녀	없음	868	46.4
	있음	1003	53.6
학력	중졸이하	442	23.6
	고졸	857	45.8
	대졸이상	571	30.5
사회적 지위	하류층	343	18.3
	중하류층	731	39.1
	중류층	727	38.9
	중상류층	66	3.5
	상류층	4	.2
기술수준 적합도	매우 낮음	8	.4
	낮은 편	150	8.0
	맞는 편	1697	90.8
	높은 편	14	.7
전직고용형태	정규직	995	69.5
	비정규직	437	30.5
퇴직사유	비자발적 퇴직	436	24.5
	자발적 퇴직	1347	75.5
재취업여부	미취업	1239	66.2
	재취업	632	33.8
이전소득여부	없음	1382	73.9
	있음	489	26.1
직업훈련경험	없음	1827	97.6
	있음	44	2.4
건강보험가입여부	비가입	1612	86.2
	가입	259	13.8
거주지	수도권	422	22.6
	광역시	197	10.5
	중소도시 및 농촌	145	7.7
	기타 지방	1107	59.2
사회보험수혜여부	없음	1750	93.5
	있음	121	6.5
근속기간(년)	평균(SD)		3.6(5.34)
월평균생활비(만원)	평균(SD)		142.31(80.33)
실업기간(년)	평균(SD)		3.97(5.15)

〈표 4〉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2 - 성별 비교

변수명	구분	남성	여성
		빈도(%) 혹은 평균(SD)	빈도(%) 혹은 평균(SD)
연령	20세 이하	12(2.0)	4(0.3)
	21세~29세	181(29.7)	320(25.4)
	30세~39세	165(27.1)	445(35.3)
	40세~49세	122(20.0)	275(21.8)
	50세~59세	111(18.2)	201(15.9)
	60세 이상	18(3.0)	17(1.3)
	평균(SD)	37.73(11.87)	37.65(10.57)
결혼여부	미혼	237(38.9)	181(14.3)
	결혼	372(61.1)	1081(85.7)
자녀유무	없음	371(60.9)	497(39.4)
	있음	238(39.1)	765(60.6)
학력	중졸이하	122(20.0)	320(25.4)
	고졸	249(40.9)	608(48.2)
	대졸이상	237(38.9)	334(26.5)
사회적 지위	하류층	146(24.0)	197(15.6)
	중하류층	255(41.9)	476(37.7)
	중류층	190(31.2)	537(42.6)
	중상류층	17(2.8)	49(3.9)
	상류층	1(0.2)	3(0.2)
기술수준 적합도	매우 낮음	5(.8)	3(.2)
	낮은 편	82(13.5)	68(5.4)
	맞는 편	511(83.9)	1186(94.0)
	높은 편	10(1.6)	4(.3)
전직고용형태	정규직	324(69.4)	671(69.5)
	비정규직	143(30.6)	294(30.5)
퇴직사유	비자발적 퇴직	199(34.3)	237(19.7)
	자발적 퇴직	382(65.7)	965(80.3)
재취업여부	미취업	262(43.0)	977(77.4)
	재취업	347(57.0)	285(22.6)
이전소득여부	없음	443(72.7)	939(74.4)
	있음	166(27.3)	323(25.6)
직업훈련경험	없음	585(96.1)	1242(98.4)
	있음	24(3.9)	29(1.6)
건강보험가입여부	비가입	449(73.7)	1163(92.2)
	가입	160(26.3)	99(7.8)
거주지	수도권	158(25.9)	264(20.9)
	광역시	64(10.5)	133(10.5)
	중소도시	42(6.9)	103(8.2)
	기타(지방)	345(56.7)	762(60.4)
사회보험수혜여부	없음	556(91.3)	1194(94.6)
	있음	53(8.7)	68(5.4)
근속기간(년)	평균(SD)	4.64(7.18)	3.09(4.08)
월평균생활비(만원)	평균(SD)	130.66(71.81)	147.94(83.59)
실업기간(년)	평균(SD)	1.97(2.76)	4.94(5.73)

한편 사회적 지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중하류층(41.9%)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나, 여성의 경우 중류층(42.6%)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 적합성에서는 남성과 여성 각기 83.9%와 94.0% 정도가 기술수준이 적합하게 맞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모두 전직의 고용형태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비율이 각기 69.4%와 69.5%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남성의 경우 65.7%가 자발적 퇴직을 가졌고, 여성의 경우 80.3%가 자발적 퇴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근속기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4.64년이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3.0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이전소득을 비교해 보면, 각기 72.7%와 74.4%가 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다수인 96.1%와 98.4%가 직업훈련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남성 중 73.7%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반해, 여성의 경우 92.2%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수혜여부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대다수인 91.3%와 94.6%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은 130.66만원, 여성의 평균은 147.94만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월평균 생활비 규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거주지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및 농촌이 아닌 그 밖의 지방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남성이 56.7%이고 여성의 경우 60.4%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ox 회귀분석 결과¹³⁾ 및 위험도 추이 비교: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의 비교

먼저 전체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확률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적자본모델(모델 1)에서는 직업훈련경험,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이 대상자의 재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훈련경험이 있을수록,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과거에 정규직에 고용되었던 이들이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본 연구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marginal level의 유의도(p<.1)를 가지는 변수에 대해서도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하여 논하였다.

〈표 5〉 재취업에 대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독립변수	Model 1 (인적자본모델)	Model 2 (인간능력모델)	(가) Model 3 (나) (통합모델)
	B	B	B
학력수준	.562		-1.957***
기술수준적합도	.006		-.148***
직업훈련경험	.757***		.204
근속기간	-.018***		-.016***
고용형태	.324***		.203 #
이직사유	-.196 #		.094
기초교육능력		.310*	.216
건강보험가입여부		1.985***	1.846***
의료비 지출		-.087 #	-.071
생활지불능력		.001	.001
사회보험수혜여부		.595*	.414 #
이전소득여부		.030	-.001
사회적 지위		-.115 #	-.010
연령		.061 #	.022
연령 제곱		-.001 #	.000
성별		.831***	.899***
혼인여부		-.382*	-.310
자녀유무		.199	.287
수도권거주여부		.231*	.220 #
N	1346	1475	1064
-2Log-Likelihood	6970.830	6267.097	4875.413
chi-square	66.684***	949.969***	710.696***
degree of freedom	6	13	19

p<.1, * p<.05, ** p<.01, *** p<.005

또한, 인간능력모델(모델 2)에서 포함시킨 변수들 중에서는 기초교육능력, 건강보험 가입여부, 사회보험 수혜여부, 성별, 혼인여부, 수도권 거주여부 등이 재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교육능력을 지닌 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가, 사회보험 수혜를 받는 이가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혼인 여부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거주한 이들이 더 높은 재취업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적자본모델과 인간능력모델의 변수를 통합하여 상호의 영향력을 통제된 모델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호 통제되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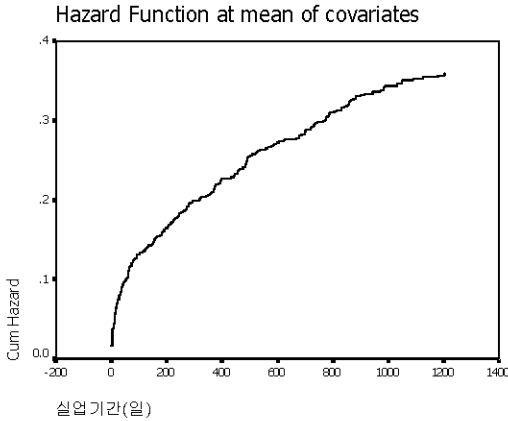
즉 학력수준,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모델의 변수들과 건강보험가입여부, 성별 등의 인간능력모델의 변수들이 연구대상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변수는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과 부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고, 기술수준의 적합도 역시 부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기간 역시 지속적으로 부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인적자본 변수들의 경우, 모두 기대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인적자본관점 변수들이 재취업의 가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델 3의 분석 결과 중 인간능력 변수들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가입여부와 성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재취업의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보험 수혜여부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변수도 유의한 수준은 다소 떨어지긴 하나, 한계 수준(marginal level)에서 기대되는 방향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 사회보험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고, 예측한 바와 같이 남성인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인간능력관점 변수들의 경우, 모두 기대되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재취업의 가능성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능력관점의 변수가 재취업의 가능성에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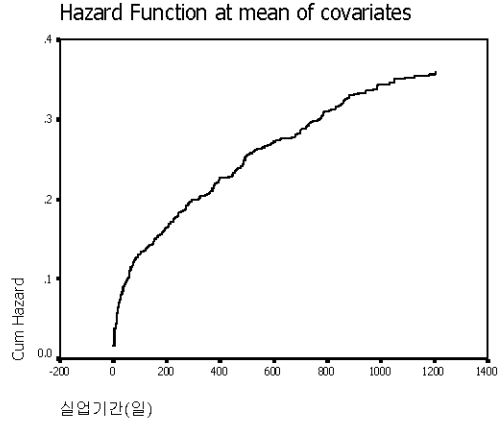
위의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은 재취업가능성과 관련해서 기대와는 다르게 주로 부적인 방향에서의 관계를 가지나, 인간능력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 특히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요인들은 재취업 가능성과 관련 기대한 바대로 정적인 방향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설정을 통해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이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데도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 변수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모습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형태로 전개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의한 차이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배제 차원에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에 따른 재취업 가능성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리한 전반적인 재취업 위험도 추이를 보면, <그림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각 요인들에 따른 재취업 위험도 추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 후 200일 정도까지에서는 인적자본요인에 의한 재취업 가능성도 좀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는 인간능력요인에 의한 재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뚜렷이 구별되는 큰 차이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적자본요인의 재취업위험도



인간능력요인의 재취업위험도



〈그림 2〉 인적자본요인 및 인간능력요인에 의한 위험확률의 변화

3) 성별에 따른 Cox 회귀분석 결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의 비교

다음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재취업의 가능성이 다른 모습을 가지는지, 특히 인적자본 요인 및 인간능력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서 다른 이들 요인들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Cox 회귀분석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6>에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인적자본모델(모델 1)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고용형태와 이직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경우 영향력의 방향이 동일하나, 고용형태와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이들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갖지 않으나, 남성의 경우에 정규직이었던 경우 그리고 자발적인 이직을 가졌던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간능력모델(모델 1)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기초교육능력, 의료비지출, 생활지불능력, 사회보험수혜여부, 사회적 지위, 연령, 혼인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경우 영향력의 방향이 동일하나 이들 변수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 영향력의 유의미성과 방향 등에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기초교육능력과 의료비지출, 사회적 지위, 혼인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남성의 경우와는 다른 영향력의 방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초교육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초교육능력이 재취업의 가능성과 정적인 방향에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변수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함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클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 역시 의료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없으나, 여성인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재취업의 가

능성이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인여부 변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을 한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의 경우 혼인을 한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취업에 대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의한 분석-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 성			남 성		
	Model 1 (인적자본)	Model 2 (인간능력)	Model 3 (통합)	Model 1 (인적자본)	Model 2 (인간능력)	Model 3 (통합)
독립변수	<i>B</i>	<i>B</i>	<i>B</i>	<i>B</i>	<i>B</i>	<i>B</i>
학력수준	.849		-1.358	-.939 #		-4.632***
기술수준적합도	-.084		-.930***	.120		-.058
직업훈련경험	.744*		-.171	.878***		.791*
근속기간	-.029***		-.021***	-.014***		-.015***
고용형태	.119		.329 #	.692***		.204
이직사유	-.184		-.130	.336*		.249
기초교육능력		.565**	.424 #		.192	-.190
건강보험가입여부		2.228***	2.173***		1.408***	1.231***
의료비 지출		-.164*	-.165 #		-.047	-.027
생활지불능력		.000	.000		.003***	.005***
사회보험수혜여부		.329	.432		1.111***	.695 #
이전소득여부		-.016	-.160		-.118	.054
사회적 지위		-.300***	-.157		-.018	.174
연령		.083	.037		.161***	.192***
연령 제공		-.001	.000		-.003***	-.003***
혼인여부		-1.604***	-1.452***		.960***	.865***
자녀유무		.111	-.071		.032	.072
수도권거주여부		.134	-.015		.071	.196
N	908	1011	724	438	464	340
-2Log-Likelihood	3062.673	2701.876	2134.853	3005.967	2756.946	2034.571
chi-square	46.149***	637.728***	504.307***	55.732***	272.263***	220.433***
degree of freedom	6	12	18	6	12	18

p<.1, * p<.05, ** p<.01, *** p<.005

한편 남성의 경우, 생활지불능력, 사회보험수혜여부,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들에서 여성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생활지불능력과 사회보험수혜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이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동시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지불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이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미함이 없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고 이후에는 부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 일정 연령 이후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을 결합한 모델에 의한 분석결과를 놓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인적자본변수들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미함의 변화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나 인간능력변수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여성의 경우, 통합모델에서는 기술수준적합도가 부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직업훈련변수는 통계적인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변화들이 있고, 남성의 경우에도 학력이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하게 되고 고용형태와 이직사유 변수는 통계적인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자본변수들의 경우, 인간능력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다소 통계적인 유의함과 영향력의 방향 등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인간능력변수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함과 영향력의 방향 등에서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여성의 경우, 통합모델에서는 사회적 지위 변수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유의함의 변화가 없고, 특히 영향력의 방향에서는 인적자본변수들의 통제 전과 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능력과 의료비지출 변수 등의 통계적인 유의함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영향력의 방향은 원래의 방향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수혜여부 변수만이 통계적인 유의함에서 다소의 변화를 갖지 다른 변수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함과 영향력의 방향 등에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와 인적자본요인 및 인간능력요인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본요인의 경우, 성에 따라 차이를 갖던 변수들이 인간능력변수들을 통제할 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간능력요인의 경우, 성에 따라 차이를 갖던 변수들이 인적자본변수들을 통제할 때에도 거의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인간능력요인의 경우 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한 결과가 인적자본변수들을 통제할 때에도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을 통합한 모델에 기초했을 때, 특히 주목되는 변수는 기초교육능력과 혼인여부 변수이다. 이들 변수에 있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서 영향력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나 통계적인 유의함의 정도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기초교육능력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하고 그 영향력의 방향 역시 정적인데, 이는 여성의 재취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의 하나가 기초적인 교육능력의 보유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여부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 부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인 유의함을 갖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인 유의함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향 요인의 하나가 혼인의 여부로서 남성과는 다르게 이에 따라서 재취업의 가능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즉 혼인을 하는 경우에 여성의 경우 재취업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과 재취업 가능성의 사이에서 역 U자 형태의 다항적인 관계가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연령과 큰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에 연령에 상관없이 재취업의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더욱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취업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실업의 문제에 놓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요인의 영향으로 재취업으로의 지위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기존의 인적자본적 관점에서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인간능력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개념 논의를 정리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인간능력에 관한 다양한 개념화 작업을 기초로, 인간능력을 개인수준에서 검증될 수 있는 구체적 변수로 조작화해 보는 시도를 통해, 이 시각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인간능력 관점에서 주요하게 제기하는 이슈인 사회적 배제요인인 성의 차이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이 요인에 따라 재취업의 가능성이 인적자본모델과 인간능력모델 각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먼저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Cox 회귀분석의 결과에 앞서 기술적 분석 결과 중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보면, 여성은 실업자들 중의 재취업은 33.8%이고 이들의 실업기간의 평균은 3.97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 비율을 성별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재취업이 57%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22.6%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기간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실직기간의 평균이 4.94년임에 반해 남성은 1.97년으로 남성의 실직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취업의 가능성에 대한 Cox 회귀분석의 결과 특히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을 상호 통제된 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적자본변수들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재취업의 가능성과 부적인 관계를 가짐에 반해, 인간능력변수들은 기대하는 바에 일치하여 재취업의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 기술수준적합도, 근속기간 등과 같은 인적자본변수들이 재취업과 부적인 방향에서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 변수들에 있어서 그 정도가 더 강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인간능력요인으로 설정된 변수들 중 의료보험가입변수와 사회보험의 수혜변수와 같은 기초적인 보장의 수혜는 재취업의 가능성을 더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인 인간능력요인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여부의 변수 역시 재취업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적인 인간능력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적자본관점의 요인들은 실제에 있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인간능력관점 요인들은 기대와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인간능력관점 요인들의 실질적인 유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이의 유효성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 인적자본요인 및 인간능력요인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Cox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즉 성과 각 모델의 변수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가를 탐색한 결과를 보면, 인적자본요인의 경우, 성에 따라 차이를 가졌던 변수들은 고용형태와 이직사유 등이었는데, 이 변수들은 인간능력변수들을 통제할 때 통계적인 유의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간능력요인의 경우, 성에 따라 차이를 가졌던 변수들이 인적자본변수들을 통제할 때에도 거의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자본요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인간능력요인의 경우에는 성에 따라서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한 결과가 인적자본변수들을 통제할 때도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능력요인이라는 것이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에 따라서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적자본요인의 효과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인간능력요인은 매우 안정되고 일관적인 모습을 가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능력요인들 중 기초교육능력과 혼인여부 변수가 성에 따라서 영향력의 방향이나 통계적인 유의함의 정도에서 다른 모습을 가짐을 보여주는데, 이는 남성이 아닌 다른 성 즉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에 있어서 기초적인 교육능력의 보유를 갖게 함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혼인여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이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기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혼인이라는 것이 재취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는 구조적 환경 속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연령에서도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과 재취업 가능성의 사이에서 역 U자 형태의 다항적인 관계가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연령과 큰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에 연령에 상관없이 재취업의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인간능력관점에서 분석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전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여주는 결과는 기존의 이중적노동시장이론, 특히 성분질적인 노동시장이론이 제시하는 논리가 재취업의 가능성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인간능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업자의 재취업의 가능성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에 있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관점이자 복지적 가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하는 관점인 인간능력의 관점에 보다 주목하면서 인적자본의 관점과 비교의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여 재취업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고용 및 재취업 등과 관련한 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적자본 이론을 인간능력 이론과의 비교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재취업의 가능성이라는 현상을 보다 풍부히 조명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실증적인 분석 작업은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엇에 주목하면서 노력을 경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사회복지적 개입이 얼마나 큰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인간능력 관점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단위를 개인 수준으로까지 구체화해서 인간능력 관점의 실증적 분석의 적용 단위를 확대해 본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간능력의 관점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개념의 명확화와 조작화 측면에서 특히 인간능력관점의 개념화와 조작화 측면에서 다소의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는 인간능력 관점 논의의 광범위함과 이차자료를 분석하는 것의 제한성 그리고 인간능력 관점으로부터의 기존 실증연구의 분석단위가 국가인데 비해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인간능력 개념의 조작화에 있어 인적자본 개념과의 차별성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분석단위의 수준을 낮추어서 개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노력과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재취업의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인적자본적 시각과 인간능력의 관점에 기초했는데, 앞으로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분절 논의와 같은 다각적인 측면의 관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여 재취업의 모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 변수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분석했는데, 앞으로 모든 변수들을 성과 같은 제한적 변수와 연계시켜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 변수, 인간능력 변수, 노동시장분석 변수들 간의 구체화된 상호작용 효과 등을 설정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¹⁴⁾ 실업 후 재취업이라는 현상이 노동시장의 문제만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인간능력의 고양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는 것임을 검증할 수 있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 현상과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발전에 큰 변화가 촉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철희 외. 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모수적 생존모델 (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1~31.
- 강철희·김교성. 1999.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 형태에 관한 연구: Weibull Survival Model과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9: 5~40.
- 김엘림. 1989.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2: 119~151.

14) 예를 들면, 성변수와 연령변수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김엘림. 1994. "신정부 여성노동정책의 동향과 과제." 『여성과 사회』 5: 111~139.
- 김인숙. 2000.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의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1: 93~118.
- 김정희·정일환. 2002.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133~162.
- 박민자. 1997.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9: 191~212.
- 이건창 외. 2001. "기업의 인적자본 형성요인 및 지수개발을 위한 지식경영 접근 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국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25(2): 29~63.
- 이기영·서지영. 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10.
- 이혜경.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논문집. 제15권 제1호. 평택대학교
- 장지연. 2000.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노동현실과 대안." 『경제와 사회』 48: 272~281.
- 조순경. 1994. "고용과 평등의 딜레마?" 『한국여성학』 10(1): 181~209.
- 조준용. 1999. "전직실업자의 노동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주성환·최준혜. 2001. "성별 노동시장 참가패턴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24(2): 63-94.
- 최은수. 1997. "인간자본론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실업문제와 인적자원 개발정책." 『교육재정·경제연구』 6(2): 383~414.
- Becker, G. 1965.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ettke, Peter and J. Robert Subrick. 2003. "Rule of Law, Development, and Human Capabilities". University of Chicago. pp.109~126.
- Bourdieu, P. 2001. *Masculine Domin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Cameron, J. 2000. "Amartya Sen on Economic Inequality: The Need for an Explicit Critique of Opu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2, pp. 1031~1045.
- Doeringer, Peter B. and Piore, Michael J.,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Fukuda-Parr, S. 2002. "Operationalising Amartya Sen's Ideas on Capabilities, Development, Freedom and Human Rights: The Shifting Policy Focus of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ttp://hdr.undp.org/docs/training/oxford/readings/fukuda-parr_HDA.pdf
- Gagnon, Suzanne and Nelarine Cornelius. 2000. "Re-examining workplace equality: the capabilities approach".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000. 10, 4.ABI/INFORM Global. pp. 68~87.
- Gorden, D. M., Edward, R. C., and Reich, M., 1975. *Labor Market Segmentation, Health and Company*.
- Grasso, Marco. 2002. "A dynamic operationalisation of Sen's capability approach". Paper prepared for the 14th Conference of the Italian Society for Public Economics SIEP(2002)-Pavia, 4-5 October 2002.
- Jung, K. 2002.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Literacy Skills on Wage in Five Developed Countries: Evidence of College Premium and Adult Literacy Skills". *저*

- 방연구. 제6권 제1호. pp.277~300.
- Kimmel, M. 2000. *The Gendered Society*. New York Press.
- Mazur, A. G. 2002. *Theorizing Feminist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ing, and Earn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C. 2001. "Humanities and Human Capabilities". *Liberal Education*. Summer 2001. Vol. 87 Issue 3. p.38.
- Nussbaum, M. C. 2002. "Capabilities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Blackwel Publishing Inc. pp.123~135.
- Qizilbash, M. 1996. "Capabilities, Well-Being and Human Development: A Surve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Dec 1996. 33, 2. Frank Cass. London. pp.143~162.
- Schultz, T. 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 1997. "Editorial: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World Development*. Vol.25, No.12. pp.1959~1961.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박우희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 Spence, A. M. 1974. *Marketing Signaling: Information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ing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Thurow, L. 1975. *Generating Inequality*, Basic Book.
- Valian, V. 1998. *Why So Slow? The Advancement of Women*. Cambridge, Mass.: MIT Press.

〈부록〉

〈부표 1〉 인간능력관점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인간능력개념정의	개념의 하위요소	비고
Boettke & Subrick (2003)	복지(well-being)를 향상시키는 비 화폐적 요인(non-monetary factors)	생존율(life expectancy)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영양실조(malnutrition)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 교육(education)	국가 비교 연구
Sen (1994; 1999)	능력 평등이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또는, 존재 하기를 원하도록 '기능'할 수 있는 것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능	
Nussbaum (1999)		기본 능력(basic capability) 내적 능력(internal capability) 조합능력(combined capability)	
Nussbaum (2002b)	불평등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여성의 인간능력에 있어 불평등함		여성 연구
Qizilbash (1996)		건강수준; 최소한의 이해력; 자기-존중과 열망; 긍정적 자유/부정적 자유와 해방; 향유; 이해력이나 지식;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 성취	
Cameron (2000)	개인 상호간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고려	불평등의 차원: '인간복지의 전체적인 분배', '빈곤'과 '부'	정책 연구
Gagnon & Cornelius (2000)	직장 내 평등에 대한 제고 (re-examining workplace equality)		조직 행정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 Centered on the Applications of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Lee, Hong-Jik

(Kangnam University)

Hong, Hyun-Mi-R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hazard rate of reemployment by conducting the Cox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wo gender groups are subjected to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on reemployment. For this purpose, 1,871 cases are selected from the 5th year data from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human capital, such as education, appropriateness of skill level, and job tenure hold negative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while factors of human capability, such as basic learning ability, health insurance, social insurance, residential area(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ld positive on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t is interesting note that there are different sets of factors that affect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n the two gender groups. This trend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case of factors that pertain to human cap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factors of human capability, which stress the socio-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s comparab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factors that pertain to human capital when it comes to the estimation of reemployment. Also,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teach us that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gender-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should be factored in for reemployment discussion as well.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elivers several significant messages sinc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subjected to few empirical analyses in the past, and also heralds the way for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factors pertaining to human capability on reemployment.

Key words: human capital perspective,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unemployment, reemployment

[접수일 2005. 3. 7. 게재 확정일 2005. 4. 26.]